

## 조선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준비회의에서 경상남도 지역현안 건의

- 1일(월)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경상남도, ①지역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②기자재업체 금융지원 대책  
③조선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④대우조선관련 지역대책 등 4개 분야 건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실무준비 회의’가 4월 1일(월)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개최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5개 시·도(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의 조선해양부서의 담당과장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조선공업협동조합, 산업연구원,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중소조선연구원(RIMS),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경남대학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 방식과 역할 등에 관해 논의했다.

최근 조선 업황이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기는 하나,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업체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체결에 따라 경상남도는 지역업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 국내 대형 조선소 3사와 기자재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해 줄 것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해왔다.

또한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3월 15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산업부 주관 조선기자재업체 간담회에서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고, 이에 대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지역경제의 후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실무준비 회의에서 경상남도는 조선산업 생태계의 안정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대책 ▲조선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체제 유지, 기존 물량 거래선 유지, 고용안정 등 ▲대우조선관련 지역대책 등 4개 분야에 대해 건의했다.

천성봉 경상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조선산업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경남의 조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략산업과 손창환 주무관(055-211-3133)에게 연락바랍니다.